



화순 세랑제의 봄 봄비가 내린 14일 화순 세랑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산벚꽃이 어우러진 독길을 걷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광주U대회 조직위, 분위기 띄우기 고심

### 5만명 예상 시민 서포터즈 지원자 현재 2만명 수준 부진 '외국어 스크' 이수 2568명 그쳐...단체예매도 실적 저조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8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좀처럼 대회 분위기가 뜨지 않고 있다. 축제에는 손님이 많아 분위기도 살고 흥행에도 성공하는 법인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열기를 고조시킬 만한 차별화된 전략이 미흡한 실정이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12만명의 외국어 자원봉사 인력을 양성, 하계유니버시아드 기간 광주를 찾은 외국인 선수들의 통역 요원으로 활용키로 했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광주시는 5년 전 대학 언어교육원에 위탁, 외국어 자원봉사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같은 '외국어 스크' 프로그램 이수자는 고작 2568명에 불과했다. 언어별로는 영어 이수자가 18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어(407명), 일본어(95명), 스페인어(95명), 프랑스어(60명) 등의 순이었다. 광주시가 외국어 자원봉사 인력 양성에 들인 예산만 22억원이 넘는다.

그나마 이들 인력을 대회 기간 통역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광주시는 애초 통역 요원 활동 서약서를 받았다고 했지만 강제력이 없고 직장이 있는 경우를 고려하면 사실상 통역 인력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헛돈'을 썼다는 지적도 많다.

시민 서포터즈 모집도 저조하다. 광주시와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16일부터 5만명을 목표로 한 시민 서포터즈 모집에 들어갔지만 현재 지원자는 2만229명으로 파악됐다. 참가국 현황 등을 파악하고 각 참가국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서포터즈 활동 등을 감안하면 이달 말까지 모집 인원을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5만명 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는 "공공기관 7곳·시민단체 3곳·생활 체육회 6곳 등의 단체 신청이 포함된 것으로, 1만5283명은 각 자치구를 방문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시민 서포터즈에 대한 인식 부재가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방안은 포스터 제작(9000부·250만원), 현수막(213개·1790만원) 계획 등이 전부

다. 대회 티켓 판매 등 흥행몰이에 대한 불안한 시선도 적지 않다. 현재 대로라면 목표 유료관객 수 20만명(무료 25만명)을 채우기에도 버거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지난 8일 단체 예매가 시작됐지만 초·중·고교 17곳(2970명), 광주시체육회와의 약정 체결이 전부다. 다른 지역에 문의나 사전예약은 미미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 때문인지 오는 27일 시작되는 온라인 입장권 판매를 위한 대행사에는 단 한 곳만 지원하는데 그쳤다.

조직위원회 안팎에서는 세월호 추모 분위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열기를 고조시킬만한 '붙임' 활동과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할만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1 해질 19:04 달밤 03:27 달길 15:08

**다시 찾아온 봄날**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음	7/21	보성	맑음	7/20
목포	맑음	7/18	순천	맑음	8/22
여수	맑음	8/19	영광	맑음	7/20
나주	맑음	7/21	진도	맑음	7/20
완도	맑음	8/20	전주	맑음	7/21
구례	맑음	7/22	군산	맑음	6/18
강진	맑음	7/20	남원	맑음	6/19
해남	맑음	7/20	홍산도	맑음	8/17
장성	맑음	6/20			

**바다 날씨**

목적	미물	셀물
목포	11:10	04:03
	23:38	16:53
여수	06:29	12:38
	18:47	23:43

**생활지수**

- 수면: 80
- 운동: 70
- 빨래: 70

**주간 날씨**

날씨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10/22	☁	☀	☀	☀	☀	☀	☀
7/19							
9/22							
13/18							
11/21							
9/21							
8/23							

## 광주지역 교차로 10곳 비보호 좌회전 허용

### 문화전당역·옛 광주여고 입구 등

광주지역 교차로 10곳의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4일부터 직진 신호에도 마주 오는 차량이 없으면 운전자의 판단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교차로 10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차로는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동구 문화전당역·옛 광주여고 입구 ▲서구 상무고 입구·전변소각장 입구 ▲남구 대촌입암마을 입구·진월호수공원 입구 ▲북구 양산광명아파트 입구·일신방직 입구 ▲광산구 수완고실초교 입구·수완EG

아파트 입구 등 10곳이다.

경찰은 신호 대기시간을 단축해 교통 정체를 방지하겠다는 구상으로 도로교통공단의 효과분석을 거쳐 63곳에도 추가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중순께는 다가오는 차량을 감지해 교차로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교차로 감응신호시스템'을 5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신호 주기가 유동적으로 조정돼 신호 위반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이 도입되는 교차로는 제2수원지·상무소각장·대촌연립주택·효령삼거리·송정중앙초교 등 5곳이다. /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작년 집중호우 등 재난피해 시설 37% '미복구'

### 안전처 "6월말까지 완료"

지난해 재난 피해를 당한 시설 가운데 37%는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안전처는 작년에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본 시설 2180건 가운데 10월 현재 1380건을 복구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나머지 800건은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인 6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배수펌프장과 저수지 등 6월까지 완공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장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요공정만이라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발생한 자연재난 피

해규모는 7개 시도에서 총 1474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에 피해를 본 공공시설 복구사업에는 총 4757억원이 투입된다.

안전처는 작년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고 피해재발 대책을 논의하는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해 큰 피해를 본 시도의 국장, 시군구 부단체장,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국장 등이 참석했다.

안전처는 "우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면 기관장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현지 지도·점검을 관련기관에 당부했다. /연합뉴스

## 오존예보 오늘부터 전국 시행...하루 4차례 발표

국립환경과학원은 15일부터 오존 예보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존 예보는 전국 18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오전 5시, 11시, 오후 5시, 11시 등 하루 4차례 발표된다. 경기도는 북·남부, 강원도는 영서·동 권역으로 세분화한다. 예보는 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등 4개 등급으로 나뉜다.

시간당 농도(ppb)를 기준으로 좋음은 0~30, 보통은 31~90, 나쁨은 91~150, 매우나쁨은 151이상이다. 나쁨일 경우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에 나가지 않아야 한다. 매우나쁨이면 가급적 실내활동이 권고된다. /연합뉴스

창사 63주년

**소통의정 열린의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구현**

**다품미인 쇼핑몰**

**정읍시의회**  
www.jcc.or.kr